

“해체·복원 지양, 부분 보수 강구”

유홍준 문화재청장, 취임 100일 간담회서 ‘직영보수단’ 검토 밝혀 석가·다보탑 복원 등 원점서 재검토... “현대공학 과거만 못해”

“해체·복원은 실질적으로 새집을 짓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무너진 후에 다시 짓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여론을 의식한 해체복원은 문화재의 고품질된 멋만 해치고, 예산만 낭비할 뿐이다”

취임 100일에 즈음해 12월 13일 ‘한국의 집’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홍준 문화재청장(사진)은 “문화재의 해체·복원을 지양하고 부분 보수를 통해 안전을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석가탑·다보탑·감은사지동·서탑과 여수 진남관 등에 대한 해체복원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익산 미륵사지 서탑 해체·복원과 관련 “각계의 의견을 모아 신중하게 복원 방법을 결정할 것이다”며 “모든 전통의 반대를 무릅쓰고 권력자의 정치적 목적으로 졸속 추진돼 1993년 복원 완료된 익산 미륵사지 동탑과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건봉사 능파교 붕괴 사고나 선암사 승선교 복원에서 겪은 어려움 등에 대해서는 “현대공학이 발달했다 해도 과거의 공법에 미치지 못하는 면이



있고, 특히 자연의 리듬에 맞추는 노후우 또한 과거만 못하다”며 “특정분야 공사 노후우 축적을 위해 직영보수단을 만들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청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매장문화재발굴과 관련 “발굴조사기관 윤리강령 제정 및 매장문화재 조사에 관한 독립법률을 제정해 국가가 개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발굴조사 공영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유 청장은 아울러 왕궁과 왕릉을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자원으로 육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창덕궁·경복궁·창경궁·덕수궁을 ‘조선궁궐’로 묶어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동구릉(경기 구리), 서오릉(경기 고양) 등 조선왕릉 40기를 일괄해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옛 국립중앙박물관을 개조해 조선왕궁역사박물관 개관 △공궐 관람로 인상(1월 1일부터 창덕궁 3천원, 경복궁 3천원, 창경궁·덕수궁·종묘 1천원) 등의 계획을 세워놓았다고 말했다.

유 청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원으로 7천억이나 축적돼 있는 관광기금의 목적 사업 항목에 ‘문화유산 보존·복원’을 추가해 문화재 분야에 관광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 청장은 문민정부 시절 김영삼 전 대통령이 옮겨버렸다는 설이 무성했던 석불상을 청와대에서 본 사실 언급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석불상은 잘 불인대 있으며 경주 남산에 있었더라면 보물로 지정됐을 법한 빼어난 불상이었다”고 말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왕궁사’ 기와편 출토 익산 왕궁리 유적서



왕궁리 유적에서 출토된 왕궁사명(銘) 기와편.

백제문화권 중장기 유적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김용민)가 발굴조사하고 있는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국보 제289호) 주변에서 왕궁성 내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유구와 ‘왕궁사(王宮寺)’라 새겨진 기와 및 고고자료 1천여 점이 출토됐다.

왕궁사명 기와는 수키와편으로 길이 6.1cm, 너비 2.5cm 구획 안에 세로방향으로 명문이 친선으로 음각돼 있다. 왕궁리 유적에 존재했던 사찰의 명칭 및 성격 파악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발굴 팀은 기와 내면에 통쪽흔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이 기와를 통일신라시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이번 발굴을 통해 석탑 바로 아래 지점에 목탑지로 추정되는 17m 길이 판축층의 온전한 모습이 드러났는데, 이 목탑지는 공성관련 시설을 부분적으로 파괴하고 조성한 흔적이 확인돼 석탑이 공성보다 늦은 시기에 축조됐음이 확인됐다.

그밖에 중국청자편, 철제술 등의 중요 유물도 출토됐다. 특히 중국청자편은 북조시대 후기(6세기 후반) 고분에서 출토된 청자연관문육이병(靑磁蓮文六耳瓶)과 유사한 것으로 백제의 대외관계 및 문화교류 양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발굴팀은 내다봤다.

궁중유물전시관 ‘빛장’ 내년 8월 15일 재개관

국립중앙박물관이 10월 18일자로 휴관에 들어간 데 이어, 덕수궁에 있는 궁중유물전시관도 2005년 1월 1일부터 휴관된다. 이번 휴관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유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생긴 경복궁 내 전시공간으로 궁중유물전시관을 옮겨 확대 개관하기 위한 것으로, 광복 60주년을 기념해 내년 8월 15일 재개관된다.

문화재청은 조선왕궁역사박물관을 정궁인 경복궁과 연계, 궁중문화를 폭넓게 음미하는 테마박물관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57>



경전읽기와 마음공부

생명체는 육체를 지니고 있는 한 태어나서 업역학적 법칙에 따라 반드시 죽게 되는 일과성(一過性)을 지니며, 또한 자식이라는 또 다른 분신을 태어나게 함으로서 생명체의 끝없는 반복을 되풀이 하게 된다. 이러한 우리 삶의 일과성과 반복성을 들여다보면 부처님 말씀의 뜻을 잘 새길 수 있다.

어느 현자가 죽기 전에 자신의 온 삶을 걸고 해결한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언급해 준다 해도, 이미 이전 오백년 전 부처님의 설법이 팔만사천경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이 이미 이전년 전에 쓰여 졌다 해도 그것은 그저 앞서 간 이들의 기록에 불과하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통해 얻은 것을 책으로 남길 수는 있으나 결코

해 만들어진 일종의 환상(幻想)이 아니다. 사람들은 책 읽기를 통하여 책 속의 수많은 꿈의 세계로 도피한 후, 그에 바탕을 두어 또 다른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세상에 내보내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책을 읽으면서 또 다른 도피를 시도하게 된다. 비록 그 책이 공허한 꿈의 기록이 아니고 저자의 삶에 대한 치열한 기록이라 하더라도 읽는 자의 몫은 항상 남겨져 있는 것이기에 독서는 여전히 도피처가 되어 버린다. 결국 부처님 말씀이 자신의 도피처가 아니라 자신의 치열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의 온 몸과 삶으로 말을 하고, 들을 때 가능하다. 그것은 깨어있음에 항상 생각(觀)하고, 생각하며, 또 스스로 생각해야

부처님 가르침 자기 삶에 접목하려면 항상 깨어있는 생각으로 변화 추구해야

타인에게 줄 수는 없다. 타인에게 줬자 머리로 이해할지 몰라도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들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굳이 옆에서 말하거나 책을 읽지 않아도 이미 그들은 스스로 그 뜻을 알고 있을 때 공감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것은 성현의 말씀을 아무리 어려워 접한다 해도 그러한 기록이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 자신의 삶을 걸어가면서 보고 느껴야만 알게 되는 것이다. 어린이 선인이 남긴 모든 삶의 지혜를 삶 속에서 스스로 알게 될 때 좀 되면 이제 남은 흰머리와 함께 담담한 미소만이 남는다.

이런 점에서 독서란 일종의 도피(逃避)에 불과하다. 책은 자신이 도피할 공간을 만들어 준다. 그것은 타인에 의

한다. 이것이 수행이다. 불자라면 경전이나 뒤적거리며 지식 속의 환상의 세계로 도피하지 말고 금강경 사구계만으로도 충분히 부처님 가르침에 당당히 대면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아무리 역사의 누적이 있다고 하여도 결국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항상 제로에서 시작하여 자신만의 고된으로 자신만의 해답을 얻기 위해 길을 떠나야 한다. 그렇기에 성자들이 남긴 말씀은 아무리 몇 천 년 전에 쓰였다 해도 우리의 반복되는 삶 속에서 항상 새로울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우리를 자극하며 활기에 차게 하는 것인가. 끊임 없는 다람쥐 쳇바퀴 속에서 반복되는 일상의 삶이아말로 항상 새롭고 경이의 원천임을 아는 것이 곧 마음공부일 것이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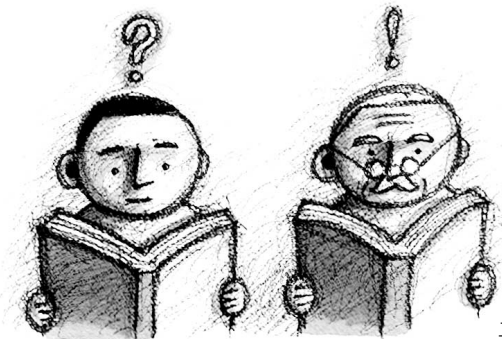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박물관 유물정보 클릭만 하면 ‘한눈에’

국가문화유산종합서비스·박물관종합정보안내 포털 강화

전국 94개 박물관 유물정보의 통합검색 등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다양한 문화유산 정보를 간접 체험으로 확충하고 재미와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문화유산 포털 사이트 ‘국가문화유산종합서비스(www.heritage.go.kr)’와 ‘박물관종합정보안내(www.korea-museum.go.kr)’가 ‘업그레이드’돼 12월 15일 새로 문을 열었다.

이전에 비해 한층 개선된 이들 서비스는 유물에 대한 텍스트 설명과 사진 중심으로 이뤄진 기존 방식을 탈피, 멀티미디어 중심의 고품질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전국에 산재된 국보, 보물, 지정문화재 등 소중한 국가문화유산 지식 및 유물정보를 통합검색 서비스에 확대하여 자신이 원하는 문화유산 자료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지방박물관 11곳과 공·사립박물관 32곳 등 94개 박물관을 네트워크로 연결, 유물자료 27만점, 문화유산정보 61만여건을 검색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동영상 서비스는 이번 업그레이드의 핵심, 박물관 중심의 소중한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과 박물관에서 실시하는 특별전이 동영상으로 상세히 소개된다.

국가문화유산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문화정보서비스의 다양화 및 품질의 고급화를 위한 것으로, 문화유산 지식 정보 DB 구축 외에도 예술·관광·역사·체육 관련 포털 사이트와 연계 및 문화놀이·문화여행 등의 다양한 주제로 확대될 예정이다. 박익순 기자

경축 중앙승가대학교총동문회장 4대총장 就任을 축하합니다

- | | | | |
|--------------|-------|---------|-----|
| 중앙승가대학교총동문회장 | 퇴우정 | 명예회장 | 범산 |
| 수석부회장 | 월우·정민 | 선거관리위원장 | 해관 |
| 부회장 | 원장·현수 | 감사위원장 | 원천 |
| 부회장 | 정인·초우 | 사무처장 | 공운 |
| 부회장 | 도각·묘근 | 사무국장 | 각연 |
| 부회장 | 보화·정주 | 출판국장 | 지은 |
| 부회장 | 성곡·일지 | 실무간사 | 한정아 |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8번지 중앙승가대학교총동문회
Tel : (02)922-7881

中央僧伽大學總同門會一同合掌

조동선림(曹洞禪林)전국결사 동참안내

조동선(曹洞禪), 「순선시대(純禪時代)」를 함께 결사하고 개창할 전국사설사암주(全國私設寺庵主), 사설선원주(私設禪院主)의 영입동참을 권칭하여 조동선(曹洞禪) 순선시대(純禪時代)의 공동체를 결사하고자 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가. 본 종단은 민법(民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소관의 비영리 법인 설립감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2004년 4월 16일에 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취득하고 소관법원에 등기절차를 마친 정규 종교 법인입니다.
- 나. 본 종단의 법통(法統)은 조계종과 더불어 선종양대선맥(禪宗兩 대선脈)으로 구산선문수미산(九山禪門須彌山)개조 이엄진철선사의 조정(祖庭)인 중국 운거산 진여사 조동적통(曹洞嫡統) 강서수창파(江西壽昌派) 49대인 해음등로(海音騰) 선사로부터 사법전승(嗣法傳燈) 함으로써 일천 여년간 단절된 선 맥을 복원하였습니다.
- 다. 본 종단은 선맥복원 사법전승 제3주년, 한국조동종총본산 창종 제2주년, 정규종교법인창업, 조동선학논총(曹洞禪學論叢) 제1집을 금년(2004) 10월 9일 창간하였으며, 제2집이 2005년 6월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 라. 사단법인 한국불교조동선림(韓國佛敎曹洞禪林)은 한국조동종총본산의 모법인(母法人)으로 청암주 금선학봉(淸巖主 金仙學峰) 총무원장의 사제인 서울 용산구 효창동 소재 원호사(元曉寺) 및 부속건물들 총 20억원의 전 재산을 법인허가와 함께 종단 공익재산화하여 종단사업발전에 지대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 마. 본 종단 전국결사 동참영입조건
 - 1) 승려에 한함(승적입적, 입십 건당) 2) 사찰등록(재산소유권 등록없음)
 - 3) 수행승, 교회사 구분하지 않음 4) 타 종단 스님도 조동선 수행에 동참가능
- 바. 사단법인 한국불교 조동선림 산하에 교구본산(敎區本山)을 별도 독립법인 설립허가를 지원할 것입니다.
- 사. 지역의 유력 구조사찰 시설에 불교승가전문학교, 조동선수련원, 단기출가학교를 개설하도록 지원하겠으며 승려양성 전문교육 및 조동선 지도자교육과 종도들의 선 수련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 아. 조동선림 전국결사에 참여 하실분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조동종 총본산 사단법인 한국불교조동선림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5-152번지 원호사 02)704-8065, 713-0475